

5·18재단 “남재준 법적 대응”... 윤장현 시장 “전두환 단죄”

“교도소 습격이 민주화냐” 왜곡 발언...대선 나와 할말인가 朴 정부 국정원장 시절 허위 정보 입수 여부 규명 필요”

5·18기념재단이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의 5·18왜곡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5·18재단은 남 후보가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재직 중 접한 5·18관련 허위 정보를 토대로 5·18왜곡 발언을 했거나, 재직 당시 5·18왜곡 관련 업무에도 참여한 것은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

한 것이었느냐”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진실 바로 알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5·18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서 선) 지만원 박사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 같이 연설했다고 남 캠프 측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남 후보 캠프 측은 같은날 홈페이지에 선거대책위 이름으로 ‘제57주년 4·19 혁명’에 즈음한 논평을 올리고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구요, 5·18 급수저 특별부처 밝혀라!”고 강변했다.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남 후보와 후보 캠프 측은 5·18 관련은 명백히 허위

주장으로 5·18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남 후보가 주장한 ‘5·18 교도소 습격’의 경우 당시 광주교도소장 한도희씨는 지난 1995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5·18당시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씨는 당시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주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보고서(2007년)를 통해 “전남합수단(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광주교도소 습격기도사건은 합수단에서 근무했던 505보안대 대공

과 수사관 등 관계자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5·18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기위한 의도에 조작됐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바 있다.

5·18유공자 및 자녀 공무원 가산점 관련해서도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모두가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다. 5·18 유공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는데도, 남 후보 측이 허위 주장을 쏟아내는 것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대선 후보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5·18의 왜곡·허위 주장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재직 당시 5·18 관련 허위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尹 시장 “전두환 거짓·역지 논리로 범죄 부인” 비판 5·18 특별법 개정 촉구...진실규명 광주도 힘 싣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8일 “전두환씨가 최근 회고록을 통해 거짓과 역지 논리로 자신의 죄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어제(17일)는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1997년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무기징역, 17년형)이 내려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은 헌정 파괴범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입증한 역사적 쾌거였다”고 강조했

다. 윤 시장은 “그런데도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양 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이 저지른 죄악을 낱알이 밝히고 청산을 위해 5·18특별법 개정 등으로 진실규명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며 광주시도 5·18단체·시민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어요” 18일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32㎍/㎥까지 올라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며 황사·미세먼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부 감사 무더기 적발

근무성적 조작·성과급 부당 수급·불공정 채용 등 101건

전남도교육청이 지금 대상자들이 아닌 데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과상여급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사립학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면서 투명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모두 101건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 고발을 비롯한 경고·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인사·예산·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유형별로는 ▲지방공무원인사·학교법인 26건 ▲교원인사·학사 21건 ▲예산·회계 20건 ▲유아교육·급식 14건 ▲시설·공사 13건 ▲평생·보건·체육·안전 7건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직전 근무성적 평점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성과상여급 1225만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29명이 경고를 받았다.

5개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위반사항(52건)을 적발하고도 과태료(79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도 확인됐다. 교장·법인이사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채용절차·채용서류도 없이 행정실장, 사무직으로 뽑는가 하면, 학교장이 자신의 머느리가 지원한 사무직 채용시험의 면접심사위원장이 된 경우도 적발됐다.

5개 학교법인은 교장·교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원들에게 제한 임기를 넘겨서까지 교장·교감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가 경고처분(6명)을 받았다. 교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뒤 공고에도 없는 과락 기준을 만드는가 하면, 공고와 달리 필기 시험 성적을 포함해 점수를 산정했던 학교들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외 유치원 통장으로 입금된 교육비를 사적으로 쓴 유치원 운영자를 고발 하는가 하면,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방과후 담임교사로 관할청에 보고, 학급담임수당을 챙긴 유치원도 적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

화학물질 유입 풍영정천 물고기 폐죽음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한 사고는 하남산단 입주 업체의 화학물질 누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광산구 하남3교 아래 풍영정천에서 거머쥔 물고기 20여 마리가 죽었다.

광주시는 오염물질 흐름을 역추적해 주변 업체가 우수관로에 계면활성제 포함된 제품 일부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업체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화학물질 누출량에 대해 보강조사를 이날 마치고 광주시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 4·19...기념식 거행

4·19혁명 5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9일 광주·전남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10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 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과 4·19혁명 경과보고, 4·19혁명 정신계승 유공자 표창, 기념사, 선언문 낭독, 4·19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공원 4·19희생자 영령 추모비 참배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전남도는 목포달맞이공원에서 4·19혁명기념탑 참배행사를 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해질 19:08
해짐 01:06 달짐 11:38

부산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 지역 | 날씨 |
|----|----|
| 서울 | 흐림 |
| 대전 | 흐림 |
| 광주 | 흐림 |
| 부산 | 흐림 |
| 제주 | 흐림 |

| 지역 | 기온(℃) |
|-----|-------|
| 광주 | 8/20 |
| 목포 | 10/17 |
| 여수 | 10/20 |
| 나주 | 6/20 |
| 완도 | 10/20 |
| 구례 | 6/20 |
| 강진 | 7/20 |
| 해남 | 6/19 |
| 장성 | 6/19 |
| 보성 | 7/20 |
| 순천 | 9/21 |
| 영광 | 7/18 |
| 진도 | 7/16 |
| 전주 | 8/19 |
| 산청 | 8/17 |
| 남원 | 5/19 |
| 축산도 | 9/16 |

| 바다 | 오전 | 오후 |
|--------------|--------------|--------------|
| 서해 앞바다 | 남서~서 1.0~2.0 | 남동~남 0.5~1.0 |
| 남부 앞바다 | 남서~서 1.0~2.5 | 남동~남 0.5~1.5 |
| 남해 앞바다 | 서~북서 0.5~1.5 | 남서~서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서~북서 1.5~3.0 | 서~북서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서~북서 2.0~3.0 | 남서~서 1.0~2.0 |

| 물때 | 간조 | 만조 |
|----|-------|-------|
| 목포 | 12:32 | 07:04 |
| | --:-- | 19:13 |
| 여수 | 08:24 | 01:45 |
| | 20:08 | 14:10 |

| 시간 | 20(목) | 21(금) | 22(토) | 23(일) | 24(월) | 25(화) | 26(수) |
|----|-------|-------|-------|-------|-------|-------|-------|
| 기온 | 9/17 | 10/20 | 8/21 | 9/21 | 9/22 | 10/20 | 10/20 |

| 생활지수 | 지수 | 상태 |
|------|-----|----|
| 관심 | 4.1 | 관심 |
| 식중독 | 4.1 | 관심 |
| 높음 | 4.1 | 높음 |
| 낮음 | 4.1 | 낮음 |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 시민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http://council.namwon.go.kr